

류현진, 18일 워싱턴전 선발 등판

마에다 선발 등판 일정 뒤로 미루고 12일 만에 복귀

류현진(30·LA 다저스)의 선발 등판 일정이 정해졌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의 랜 거니 기자와 지역 언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의 빌 플링킷 기자에 따르면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13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앞두고 류현진을 18일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18일 오전 9시 8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스 파크에서 벌어지는 워싱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지난 6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선발 로테이션대로라면 당초 1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 선발 등판해야 했다. 하지만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의 등판을 뒤로 미루고 대신 선발 경쟁 중인 마에다 겐타를 선발 투수로 내세웠다. 당시 로버츠 감독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내년도 생각해야 한다"며 류현진의 몸 상태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류현진이 18일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로버츠 감독은 16~18일 워싱턴과의 3연전에 알렉스 우드, 리치 힐, 마에다를 선발로 내세울 것이라고 밝혀 혼란에 빠졌다. 류현진의 불펜 전환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로버츠 감독은 다시 마음을 바꿔 류현진을 18일에 등판시키고 마에다의 선발 등판 일정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 류현진은 12일 만에 실전을 치르게 됐다. 거니 기자와 플링킷 기자는 마에다가 21

일이나 22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현진은 당초 13일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AT&T 파크에서 시뮬레이션 투구를 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에 끝나면서 실시하지 못했다. 타자들의 타격 훈련을 최소화하면서 시뮬레이션 투구를 할 수 없게 된 류현진은 불펜 투구만 했다. 올 시즌 22경기에 등판해 117%이닝을 소화한 류현진은 5승 7패 평균자책점 3.59를 기록 중이다. 전반가에는 예전의 구위를 보이지 못했지만, 후반가에는 8경기에 선발 등판해 2승 1패 평균자책점 2.60을 기록하며 전성기적 면모를 되찾았다. 류현진은 2013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딱 한 번 워싱턴을 상대했다. 한 차례 상대한 것이 바로 올해였다. 류현진은 지난 6월 6일 워싱턴과의 홈경기에서 7이닝 피인타(1홀런) 4실점을 기록하고 패전 투수가 됐다. 류현진이 내셔널스 파크 마운드에 서는 것은 데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한 워싱턴은 지난 11일 2년 연속 지구 우승을 확정했다. 워싱턴은 지구 우승 팀 답게 막강한 타선을 자랑한다. 양대리그를 통틀어 팀 타율 3위(0.269)를 달리고 있고 팀 장타율에서는 0.456으로 30개 구단 가운데 1위다. 팀 홈런도 내셔널리그 공동 5위(196개)다. 라이언 짐머맨(타율 0.301 31홈런 95타



류현진(30·LA 다저스)이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등판, 힘차게 공을 뿌리고 있다.

점), 앤서니 렌던(타율 0.326 29홈런 87타점) 등 주역해야 할 타자들이 즐비하지만, 간판 타자 브라이언 하퍼가 부상으로 전

전북현대 이승기 K리그 28라운드 MVP 선정

K리그 최단시간 헤트트릭을 기록한 이승기(전북)가 2017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8라운드 MVP로 선정됐다고 13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밝혔다. 이승기는 지난 1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경기에서 첫 골 이후 7분 만에 세 골을 완성하며 4-3 승리를 이끌었다. 라운드 MVP선정은 K리그와 스포츠투이아가 공동으로 개발한 투아이 지수(특집 슈팅, 패스, 볼 결합, 드리블, 돌파, 공간 침투 등 주요 경기 행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해 산출한 지수)와 연맹 경기평가회의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3번의 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시킨 이승기는 한팀 내 최다 역습시도(10회)로 투아이 종합지수 330점을 기록했다. 베스트 11 공격수에는 이종호(울산)-주니오(대구)가 뽑혔다. 오르샤(울산)-이승기(전북)-산토스(수원)-이근호(강원)가 미드필드진을 형성했고, 김민우(수원)-김민재(전북)-오반석(제주)-최종환(인천)이 4백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 골키퍼의 영예는 양현빈(서울)에게 돌아갔다. /김민근 기자



MLB 내년 시즌 30개 구단 동시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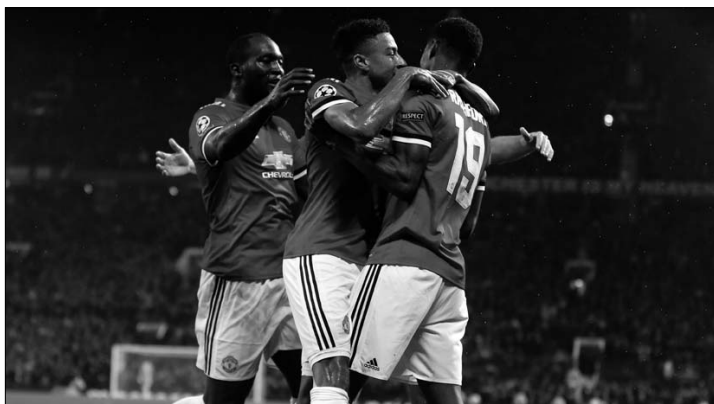
내년 메이저리그(MLB) 30개 구단이 3월 29일(현지시간) 동시에 시즌을 시작한다. 모든 메이저리그 팀이 같은 날 동시에 개막전을 치르는 것은 1968년 이후 50년 만이다. 1968년 당시에는 20개 구단이 동시에 개막전을 치렀다. 내년 개막일은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이다. 메이저리그가 목요일에 개막하는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으로, 역대 12번째다. 내년 개막일은 특별히 해외에서 개막전을 치른 것을 제외하고 가장 이르다. 종전까지 2008년과 2008년, 2014년 3월 30일에 시즌이 개막한 것이 가장 이른 개막일이었다. 정규시즌은 9월 30일 막을 내리고, 월드시리즈는 10월 말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일정 변화는 지난 겨울 메이저리그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CBA)의 영향이다. CBA에 따라 각 팀은 휴식일이 3~4일 정도 늘어났다고 했다. 월드시리즈 일정도 11월까지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LA 다저스는 지구 라이벌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로 시즌을 시작한다. 추신수(35)가 뛰고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는 개막전에서 역시 라이벌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맞붙는다. 올스타전은 7월 17일 워싱턴 내셔널스의 홈구장인 워싱턴DC의 내셔널 파크에서 개최된다. 워싱턴에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열리는 것은 1969년 RFK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이후 49년 만이다. 선수들이 한층 편하게 올스타전을 치르러 갈 수 있도록 한 CBA에 따라 올스타 휴식이 직접인 전날기 마지막 날에는 야간에 열리는 '선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경기가 없다. 오를랜드 애슬레틱스는 홈구장인 오를랜드 콜리세움이 개장 경기를 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4월 17일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팬들에게 경기장을 무료 개방한다. /뉴시스

맨유, '꿈의 무대' 화려한 신고식... 챔피언스리그 1차전 완승

FC바젤 3-0 제압

'꿈의 무대'로 돌아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화려한 복귀 신고식을 치렀다. 맨유는 13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A조 1차전에서 FC바젤(스위스)을 3-0으로 제압했다. 조세 무리뉴 감독 체제로 처음 챔스리그를 치르는 맨유는 공수의 조화를 뽐내며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맨유는 로멜루 루카쿠를 최전방에 내세워 초반부터 공세를 퍼부었다. 분위기를 끌어올리던 전반 19분 때 어린 약재를 만났다. 폴 포그바가 수비를 하던 중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교체된 것. 포그바에 이탈에도 맨유는 흔들리지 않

았다. 전반 35분 포그바 대신 투입된 마루앙 펠라이니의 헤딩슛으로 선제골을 가져갔다. 후반에도 공세는 계속됐다. 후반 8분 루카쿠의 골이 터졌다. 루카쿠는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크로스에 머리를 갖다대 2-0을 만들었다. 맨유는 후반 39분 마커스 래시포드의 썸머볼로 대승을 완성했다.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유벤투스(이탈리아)의 D조 박매치는 바르셀로나의 3-0 완승으로 끝났다. 리오넬 메시는 전반 45분 선제골과 후반 24분 썸머볼로 홈팬들을 열광시켰다. B조의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은 셀틱(스코틀랜드) 원정에서 5-0으로 이겼다. 세계 최고 몸값의 주인공이 된 네이마르는 1골1도움을 기록했다. /김민근기자



맨유는 13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A조 1차전에서 FC바젤(스위스)을 3-0으로 제압했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